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SNS 이벤트

본격 개막 앞두고 문장 완성 댓글 이벤트 열기 후끈... 26일~8월 10일 축제 개최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을 앞두고, 임실군청 SNS 댓글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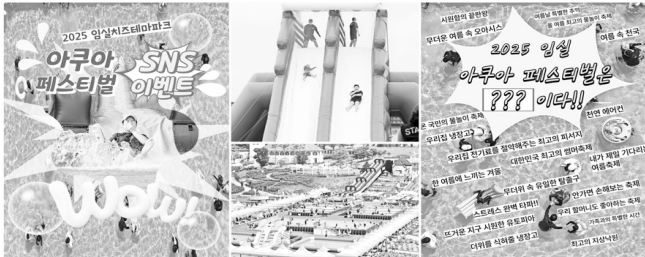
군은 이달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정미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을 맞아 신박함을 담은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이벤트는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은..." 이다"는 문장을 완성해서 군청 공식 SNS 채널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시원한 커피 기프트콘을 쏘는 행사다.

이벤트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아쿠아 페스티벌 관련 문장을 완성하여 댓글을 달고 임실군 SNS 채널을 구독한 뒤 인증 사진을 남기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개시 일주일여 지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뜨거운 호응 댓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댓글에는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은 물 만난 치즈다', '임실 아쿠아 페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을 앞두고, 임실군청 SNS 댓글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스티벌은 우리 집 에어컨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은 진짜 찜찜찜이다' 등 축제에 기대감을 한껏 나타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아쿠아 페스티벌은 물놀이와 공연, 편의시설까지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슬라이드, 유스풀, 대형풀 등 아일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물놀이 시설을 준비하고, 올해에는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 텐트와 에어컨이 설치된 쉼터를 확대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린이 DJ 파티, 댄스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방문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SNS를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SNS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아쿠아 페스티벌을 찾아 물놀이 축제를 즐기며 뜨거운 여름날의 시원한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효영 기자

강천산군립공원, 완벽 피서지 변신

계곡 물놀이 구간 확대 · 야간개장 · 시설 정비... 관광객 맞이 준비 완료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군립공원이 여름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강천산군립공원은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로, 맑은 계곡물과 시원한 폭포, 울창한 숲과 정비된 산책로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성수기를 앞두고 맨발 산책로, 화장실 등 공원 내 시설물들을 수시로 점검했으며, 25km에 이르는 등산로 전 구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돈했다.

이와 함께 계곡 물놀이 공간도 대폭 확장했다. 군은 산호개에서 금강계곡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풀베기 및 하상 정비를 실시해 남녀노소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강천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캠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동, 개수대, 데크 등 주요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캠핑장 이용객에



게는 강천산 무료입장 혜택도 제공 중이다.

특히, 여름철 야간 관광 수요에 맞춰 강천산 야간개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매일 오후 8시 30분까지 입장을 가능하도록 더 많은 방문객이 시원한 밤 산책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강천산군립공원은 순창의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관광객 자선으로, 이번 여름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자연 속에서 휴식과 감동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만족도 높은 관광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대상 문화탐방 나서

순창군이 14일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관내 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문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이해를 돕고 정서적 안정 및 지역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근로자들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고추장과 인절미, 전통 발효 음식 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해 우리 전통 식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방문한 발효테마파크와 발효소스도굴에서는 '발효의 고장'



순창의 특징과 발효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일정은 강천산군립공원에서 진행됐다. 근로자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여름 더위를 식히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역공동체 공론장 '원(ONE) 포럼' 개최

남원시는 지난 12일, 시가 주최하고 시 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 지역공동체 공론장 원(ONE)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 지역공동체 분야 전문가의 기초강연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의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의제는 시민공동체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형 공동체 활성화 위한 방안 △마을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문화형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의제별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는 향후 남원시 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위급 상황 어르신 구해

생활지원사, 가정 방문해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 신속 병원 이송

남원시는 최근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급 상황의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속히 병원에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례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 모두 타지에 거주하여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에 생활지원사가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이에 생활지원사는 곧바로 관리사무소, 마을 통장,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에 연락했고 직접 뛰며 어르신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보호자와 통화 연결로 상황을 설명하고 내부로 들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 즉시 119에 연락 병원에 이송 조치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취약 노인에게 대해 정기적으로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폭염에 대응하는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담당 생활지원사는 "일방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소통하고 살펴드려야겠다는 마음이었으며, 어르신은 돌보는 일은 그분들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생활지원사에게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자녀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관심들이 어르신 및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아동 대상 '식재료 탐험대' 특화사업 운영

남원시가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7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매주 월·수·금에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의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내 교육실에서 '식재료 탐험대' 특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특화사업은 '담근'을 주제로 한 3주간의 프로그램으로 1주 차에는

담근에 대한 이론교육 및 놀이 활동을, 2·3주 차에는 담근을 활용한 요리 활동을 통해 담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숙하게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담근에 대한 이론교육 △담근 뽑기 게임 △클레이로 나만의 담근 만들기 등의 놀이 활동과 △노인



담근 피자빵 △피마 담근 김밥을 만들 어보는 요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